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30(금) ~ 2023.01.05(목)

제공일시 2023 01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30(금) ~ 2023.01.05(목)

제공일시 2023 01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韓 전기차 ‘리스·렌트용’은 美 보조금 받는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 리스나 렌터카 형태로 판매될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상업용 전기차를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납세자가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했음
- 이는 딜러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리스·렌터카 등을 상업용 전기차로 분류한 것임
- 다만, ‘3년 유예’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미국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최소한 상업용 전기차에서는 보조금 대상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으며, 현대차그룹은 현재 5%가량인 리스 판매 비중을 30%로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힘

(한국경제, 2022.12.30) 박한신 기자

2. 상품별 ESG 정보 제공하는 디지털 여권

- EU는 2022년 3월 발표한 ‘새로운 에코 디자인 규정(ecodesign regulation)’ 초안에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가 포함됨
- EU는 제품의 내구성(durability), 재활용 가능성(reusability), 수리 가능성(reparability), 재활용 원재료 비율(recycled content),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포장·라벨·웹사이트 등에 표시하도록 했음
- 또다른 디지털 여권은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임 2020년 12월 ‘새로운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초안에서 ‘배터리 여권’ 개념이 등장했음
- 배터리 여권은 용량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료 원산지,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배터리 내구성,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을 상호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전자 시스템에 기록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EU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임

(매거진한경, 2022.12.31)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3. 세계 재보험사들, 전쟁·기후재해에 올해 보험료 최고 200% 인상

- 세계 재보험사들이 올해 보험료를 최고 200%까지 인상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음
- 재보험 중개업체 갤러거리에 따르면, 재보험사들은 허리케인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낮추기 위해 1월 1일부터 미국 재산보험 재보험료를 최고 150% 인상했음
-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전세계적으로 1150억달러(147조원)의 보험손실이 발생했다며, 10년간 평균손실인 810억달러(103조원)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음
- 전쟁으로 러시아에 발이 묶인 수백 대의 항공기로 인해 올해 항공 재보험료 역시 최고 200% 올랐음

(연합뉴스, 2023.01.04) 김계환 기자

1. 2023년 주목해야 할 환경소송 사례

- 법무법인 톰슨 코번에 의하면, 2005년 이후 PFAS 수질오염으로 인한 소송은 2005년 이후 6400건 이상 증가했으며, 로이터는 2023년에 화제가 될 것 같은 기후 및 환경소송 4건을 설명했음
- 특히 몬태나주에서 젊은이들이 정부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헌법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6월에 재판이 예정되었음
- ‘호놀룰루 대 수노코 사건’의 경우, 메이저오일에 대한 기후소송이 주법원과 연방법원 어디에 속하는지를 두고 수년간 논쟁을 벌여왔는데, 정유사들은 주법원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연방법원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함
- 공공수도시스템의 PFAS 오염에 대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기반한 소송은 2023년 첫 재판이 예정되었는데, 3M 등 PFAS가 함유된 소방용 발포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Reuters, 2023.01.03) Clark Mindock 기자

2. 대만중앙은행, 인플레이와 경제성장모델에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

- 대만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나 대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와 경제 성장에 관한 모델이나 예측을 할 때, 기후변화 리스크를 포함시키기 시작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 대만은 작년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혔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9000억 대만 달러(290억 달러)를 쓰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 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만중앙은행은 ‘그린스완’ 위험을 지적하며,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도 기후변화를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대만도 이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기상 요인을 예측 모델에 짜넣어, 물가나 GDP 성장률 등의 예측에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임

(Reuters, 2022.12.31) Ann Wang 기자

3. 싱가포르 첫 정부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 임명

- 싱가포르는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MSE)는 최초의 정부 지속가능성 최고책임자(GCSO)로 Lim Tuang Liang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 이는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SDGs) 어젠다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이행 전략인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 수립에 따른 것으로, 2025년까지 태양 에너지 보급을 4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매립지의 폐기물을 30% 감축하며, 물 소비량을 줄이고, 건물을 녹화하며, 보다 깨끗한 에너지 자동차 등이 포함됨
- 싱가포르는 2030년경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으며,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그린플랜은 2025년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약속을 포함, 정부 조달 및 입찰에도 지속가능성 관행을 도입할 예정임

(ESGToday, 2023.01.02) Mark Segal 기자

1. 미래 핵심 먹거리 보고...韓 기업엔 ‘기회의 땅’

- 코트라가 발표한 호주 산업과학자원부의 분기별 자원 및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자원 및 에너지 수출 매출 규모는 2021~2022년 4050억 호주달러로 추산되며, 2022~2023년 4190억 호주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호주가 보유한 핵심광물 지표를 살펴보면, 리튬은 2021년 기준 세계 1위 리튬 생산·수출국임 니켈은 매장량 2위 국가이며, 코발트 역시 보유국 중 2위임 현재 이들의 생산량이 각각 6%, 3%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생산량 증가에 따라 향후 주요 공급국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특히 호주는 각 주(州)별 지원도 활발하며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을 기반으로 ▲안정적이며 견고한 공급망 지원 ▲전문적 기량·기술·선진적 제조업 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임

(에너지경제, 2023.01.01) 김아름 기자

2. 전기차 보조금 개편된다...국산·수입 간 차이 벌어지나

- 환경부가 국내 사후서비스(AS) 인프라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 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환경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연비,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충전 기술을 포함한 제조사의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임
- 외국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서비스센터 운용 수준 등이 저조하기 때문에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뉴스토마토, 2023.01.02) 황준익 기자

3. ‘중국 견제’ 합심한 미국·일본...“인권 침해하면 공급망서 배제” 조직 신설

-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조직을 신설,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중국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일본이 적극 협조키로 했음
-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5일 미국을 방문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조직 설립 각서에 서명함
-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으로, 일본에선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미국에선 USTR와 국무부, 상무부, 노동부 등이 참여함
- 신설 조직은 강제 노동, 인종·종교로 인한 차별 등을 방지·조장하는 국가나 기업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지원함

(한국일보, 2023.01.05) 최진주 기자

(한겨레, 2023.01.05) 김소연 기자

1. SK어스온, 英 아줄리와 손잡고 미국·호주서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추진 / 포스코인터내셔널 통합법인 출범

-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이 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전문 기업 아줄리와 손잡고 CCS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음
- 양사는 상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질 구조에 영구적으로 주입 및 격리할 수 있는 CCS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아줄리는 영국에 본사를 둔 CCS 전문기업으로 호주, 영국, 유럽, 미국 등에서 CCS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통합법인이 1일 공식 출범했음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업구조 강건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증대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 ▲신성장 사업 추진 가속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투데이, 2023.01.02) 강문정 기자

(서울경제, 2023.01.02) 진동영 기자

(이투데이, 2023.01.02) 강문정 기자

2. 갈 길 먼 탄소중립...200대 기업 스코프3 공시율 35% 불과

- 올해 글로벌 ESG공시 최종 기준 완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총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총 70개사로, ▲자동차부품 8개사 중 7개사(87.5%) ▲금융지주 9개사 중 7개사(77.77%) ▲비금융지주사 17개사 중 11개사(64.7%) ▲은행·증권·카드 8개사 중 5개사(62.5%) ▲건설·조선 12개사 중 6개사(50%) ▲보험 6개사 중 3개사(50%) 등이 50%를 넘겼음
- 한편,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ESG 점수도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음
- 한국ESG기준원(KCGS)이 국내 기업 772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ESG 동향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적용해 ESG 등급을 측정한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으며, 특히 '매우 취약'에 해당하는 D등급이 폭증했음

(한스경제, 2023.01.04) 김동용 기자

3. SK에코플랜트, 세계 1위 건설사와 그린수소 시장 선점한다

- SK에코플랜트가 세계 1위 건설사인 CSCEC(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음
- CSCEC는 세계 1위 건설사로서, 전 세계 총 77개국에 진출해 있음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 및 중국 본토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에 적극 협력할 예정임
- SK에코플랜트는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기술력, 사업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량을 제공하고, CSCEC는 전 세계 77개국에 이르는 강력한 해외 거점망을 제공할 계획임
- 양사의 1차 개발 대상 지역은 재생에너지 분야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집트, 중국 등임

(가스신문, 2023.01.05) 한상원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2.30(금) ~ 2023.01.05(목)

제공일시 2023 01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BP·다농, 그린워싱 비난, 환경 소송 받아

- 글로벌 석유가스기업 BP가 2023년 넷제로 계획을 발표한 후, 가디언지 등 주요 외신들은 “올해 청정 에너지를 향한 BP의 성과와 노력은 점점 감소하고 그린워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함
- BP는 올해 초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재생 에너지, 수소 및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 전체의 40% 이상, 2030년까지 약 50%까지 높일 계획임을 밝힘. 연료 공급원, 전기차 충전 사업 등에도 20억 달러(약 2조원)-30억 달러(약 3조원)를 더 투자할 예정임
- 하지만 환경단체와 외신들은 BP의 넷제로 계획을 두고 '청정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를 우선시 한다', '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비난을 쏟아냄
- 먼저 에너지 투자 규모에서 격차가 있었음. BP는 올해 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에 대한 예산을 30억 달러(약 3조원)-50억 달러(약 6조원)로 책정했지만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금액은 이보다 2배 이상인 75억 달러(약 9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2050년까지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자하기로 함
- BP는 올해 초 영국의 소셜 미디어인 '인플루언스 애드(Influence ad)'에 녹색 에너지 투자에 대한 광고로 80만 파운드(약 12억원) 이상을 투자함. 영국 내 수천만 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추정됨. 이전에도 석유와 가스 생산을 점차 줄이고 저탄소와 재생 에너지 자원에 더 많은 투자하겠다는 넷제로 전환 광고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약 70만 달러(약 8억원)를 지출함. 녹색 에너지 회사 인수를 기념하는 광고에도 약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지출함
- 이를 두고 외신들은 “BP는 화석연료 회사를 공격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회사가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확장하며, 저탄소 투자에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는 주장을 재포장(reimagine)하고 있다”고 말함
- 다농은 환경단체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서프라이더 유럽재단(Surfrider Foundation Europe), 제로 웨이스트 프랑스(Zero Waste France)를 포함한 환경 및 법적 캠페인 단체 그룹은 9일(현지시각) 프랑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식음료 회사인 다농(Danon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파리 고등법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초 청문회를 개최할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상반기에 날짜를 정할 예정임
- 브랜드 감사 조사에 따르면, 다농은 2021년 에비앙(Evian), 볼빅(Volvic), 액티바(Activia)를 포함한 브랜드의 포장에 75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세계 10대 플라스틱 오염 기업 중 하나임. 상위 10위 목록에 있는 다른 회사로는 코카콜라(The Coca-Cola Company), 펩시코(PepsiCo), 네슬레(Nestlé), 유니레버(Unilever), 몬델레즈(Mondelēz), 마르스(Mars), P&G(Procter & Gamble),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페레로 그룹(Ferrero Group)이 리스트에 올라있음
- 성명서에서 소를 제기한 그룹은 다농이 프랑스 '경계의 의무 법(Duty of Vigilance)'에 따라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프랑스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매년 경계(Vigilance) 계획을 발표하여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명시해야 함.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판사 앞에서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음

(cleantechica, 2022.1.10)
(인팩트온, 2022.1.11) 홍명표 기자

- 그러나, 클라이언트어스는 주요 플라스틱 포장 생산자이자 유통업체인 다농이 이 법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농은 120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브레이크프리플라스틱(Break Free From Plastic)에 따르면 세계 10대 플라스틱 포장 생산업체 중 하나임
- 다농, 프랑스 맥도날드, 까르푸(Carrefour)를 포함하여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여러 식품 회사에 대해 캠페인을 시작하여 이들 대기업의 계획을 프랑스 법에 맞추도록 경고함. 다농이 캠페인에 응했지만, 단체들은 “답변이 미흡하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함
- 다농은 환경 투명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CDP의 2022 환경 공개 평가에서 1만8000개 이상의 평가대상 기업 중에서 12위 안에 들어간 기업 중 하나임. 그러나, 회사의 기업 지속 가능성 목표에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 재사용 가능, 퇴비화 가능한 포장에 도달하는 순환 경제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어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은 제한된 솔루션”이라고 주장함